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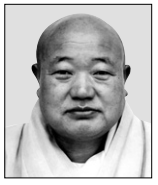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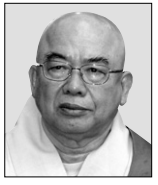
추석 맞이 소외 이웃 돕기
청소년교회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9월 21일 서울 현성정사에서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백미 20kg 100포를 전달한다.



캄보디아 개발 양해각서 체결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9월 13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와 캄보디아 시엘립 뽀농크롬 마을 개발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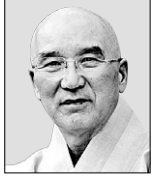
신라불교문화 영산재 봉행
경주 불교사 주지 성타 스님은 10월 12일 불국사 범영루 앞에서 신라불교 문화 영산재 및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054)746-9913



대검찰청 총장 등 관계자 예방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사 스님은 9월 12일 한상대 대검찰청 총장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서울대 국악·무용과 출강
신촌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조교)은 2012년도 2학기부터 서울대 국악과와 한국무용학과에 출강한다.



소년소녀가장돕기 산사음악회
화순 도원사 주지 전철 스님은 10월 1일 도원사 야외음악단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전국 구치소 양심수 면회
종단협 불교인권위원회장 진관 스님은 9월 17~21일 추석을 맞아 서울구치소 등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8곳을 방문한다.



아름다운 동행에 의료 지원
최재락 세왕성유 대표는 9월 13일 아름다운동행에 티셔츠와 정바지 등 약 24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후원했다.

19대 국회 정각회 출범
9월 27일 조계사에서 개원법회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정각회가 9월 27일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제18대 정각회 부회장 안홍준·강창일 의원은 "제19대 국회 정각회가 27일 오전 8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며 "법회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어 회장 및 부회장 등 회장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는 1978년 발족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선양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었다. 신종일 기자

“교육 과정 개편 통해 질 높ی겠다”

신임 진각총립 위덕대 서남수 총장

“그간 정부서 일한 경험을 심분발취해 위덕대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대학, 모든 학사체계가 학생 중심인 대학,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 기회를 재발견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정부의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지정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내년에는 불명예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교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진각총립 위덕대 서남수 총장(사진)은 취임식에 앞서 9월 10일 서울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교과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기준에 대해 서 총장은 “대학평가 선별기준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도는 제도인 만큼 주어진 범위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학평가의 핵심은 교육과정 운영 등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우선 돼야 함에도 교과부의 평가는 단순 지표에 무게를 뒀 대학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안타까워 했다. 실제로 교육 일선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교과부의 평가 기준은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학에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왜냐하면 위덕대는 장학금 지급률에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중 15위, 대구경북지

역 졸업생 1,000명 미만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2위에 해당했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제한대학 탈피를 위해 서 총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 총장은 “보직교수 대폭 개편과 우수교원 30명 이상을 채용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2013학년도 신입생 중 학자금 대출이 70%로 제한되는 소득분위 상위 8~10분위 학생들에 대해서도 나머지 학자금을 대학서 직접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 총장은 교육과정과 학사체제 전반을 과감하게 쇄신할 계획이다. 교수

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서 총장은 나름대로의 구상을 피력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직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학사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학생 충원율과 대학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프로젝트 유치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부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 내부의 학사체제 개편이 병행돼야 합니다. 산학협력 강화도 재정기반 확충에 효과적일 수 있지요. 외부 장학금 유치나 발전기금 확충 등을 높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발로 뒹 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질문에서 서 총장은 “구직과 구인 사이의 미스매치(mis-match), 즉 불일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도 이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인 필요가 있지요. 지역 기업들과의 산학협력 강화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서남수 총장은 경기도 부교육감(1999~2001),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2001~2002) 등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2007~2008), 경인교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kimj147@hyunbul.com

“현대인에게 편안한 쉼터 제공”

9월 23일 낙성식 갖는 철원 선거사 주지 도현 스님

“5천여평 대지 위에 종단의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을 아우르는 종합 종교타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량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9월 23일 개원하는 관음종 직할사찰 철원 선거사 주지 도현 스님(사진)은 도제양성과 자비실천에 매진하겠다는 종단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게 사찰을 꾸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 위용을 드러내는 선거사는 건평 6백평에 총 15개의 전각으로 이뤄진 비교적 큰 규모의 가람이다. 여기에는 대웅전을 비롯해 만세루, 선방, 삼성각 등 기본전각 외에 교육수련시설, 회의실, 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한 노스님들이 임직하면 대비장도 할 수 있게 화장시설도 갖춰 놓았다. “요사체를 비롯해 불자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 수행할 수 있게 방사도 40여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고 마음수련을 하는데는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도현 스님은 선거사가 종단의 직할사찰인 만큼 종단 스님들의 교육도량으로도 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사가 위치한 철원군에는 개신교 등 다른 종교의 복지시설은 많지만 불교복지시설이 없는 만큼 군과 지역주민들과 연계해 노인요양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한중일 인쇄문화 교류에 앞장”

제3회 고판화축제 여는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한선학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은 9월 9일 고판화박물관에서 중국 북경 문진조판박물관(관장 강성)과 상호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한선학 관장(사진)은 “아시아 인쇄문화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박물관은 아시아 인쇄문화의 수집, 보존과 연구 전시 및 교육에 협력하며 매년 정기 탐사 및 교류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 무강연화박물관과 북경 수도도서관, 북경인쇄박물관 등 인쇄관련 기관들과의 교류를 실시해왔습니다. 이번 결연을 바탕으로 아시아 인쇄문화 발달에 앞장서겠습니다.”

한선학 관장은 일본과의 교류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10월 12일부터 3일간 제3회 고판화축제를 개최한다. 고판화 축제에는 아시아 목판본 삽화 특별전 △한중일 목판본 삽화 국제 학술대회 △한중 전통각자 시연회 및 감승회 등 행사가 열린다. 또한 중·일 인쇄관련 학자들이 판화 각자 시연회를 펼칠 예정이다. 한 관장은 “한중 고판화 교류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동양문화를 이어가려는 아시아 디자인 콘텐츠 창달의 계기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양학선 선수, 자승 스님 만나 다짐



“불심을 바탕으로 계속 정진해 앞으로 열린 브라질 올림픽에서는 더욱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흐트러짐 없이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2012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역사를 새롭게 쓴 양학선 선수가 9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브라질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약속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양학선 선수에게 단주와 108염주를 직접 걸어주며 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예방자리에는 정동화 대한체육회회장(사진 맨 왼쪽), 조성동 체조대표팀 총감독을 비롯해 이호식 남자 체조 기술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노덕현 기자

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취임



대한불교 대승종(총무원장 운남)은 9월 12일 창원 대우백화점 그랜드뷰페 연회장에서 ‘대한불교대승종 제12대 총무원장 운남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총무부장 진공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5세 종정 천광 스님을 비롯해 종단임원 및 종도 300여 명이 동참했다.

신임 총무원장 운남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전 종도들의 화합과 결집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소수의 의견이라도 상생과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천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합심과 격려로 내부화합과 인재 양성, 일하는 종단으로 거듭남”을 종도들에게 당부했으며 종단 발전에 노력한 전임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도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신옥철 래퍼, 군포교 홍보나서



힙합래퍼 아웃사이더의 신옥철 씨가 9월 8일 원주 법운사에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날 신옥철씨는 법명 ‘웅비’도 함께 받았다. 9월 24일 군을 전역하는 신옥철 씨는 전역 후 군포교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the 2556th Buddhist Year (Bongheung) featuring the Daeseungjong General Assembly and the Daeseungjong Education Council.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assembly, the council's miss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Daeseungjong Education Council.